

2020
Vol. 3
통권 제13호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SEJONG RESEARCH INSTITUTE

2020
Vol. 3



CONTENTS

- 03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 이 재 민 연구위원
- 06 세종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남 영 식 연구위원
- 10 세종시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방안 | 이 윤 희 연구위원



I. 제안배경

● 문화콘텐츠 산업의 등장 배경

- 1990년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점 인식
- 디지털 기술의 발달
- 한국산 대중문화(한류)의 성공
- 대학에서의 학과 신설 등으로 인해 新 성장 산업으로 주목을 받게 됨

●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세종시의 활동

- 세종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콘텐츠 산업의 거점기관으로 인가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2019.12.16.) 시행

II. 문화 콘텐츠의 이론적 검토

● 문화콘텐츠 용어의 발생과 전개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정의되고, 디지털 혁명을 통한 기술진보와 미래 산업으로서 '문화'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콘텐츠'라는 새로운 용어와 개념이 등장함
- 대한민국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한류 열풍을 통한 인식의 전환으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

● 문화콘텐츠의 개념과 특성

- 문화콘텐츠는 문화와 콘텐츠의 합성어로서,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결과물을 의미함
- 해외에서의 콘텐츠산업은 나라마다 용어의 차이가 있음
 - 미국 : 엔터테인먼트 산업(Entertainment industry)
 - 영국 :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 중국 : 문화산업(文化产业)
-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의 모험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기반 산업임
 - 집적성과 공공성이 강하고, 특히 업계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함
 -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

1) 이재민(2020),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III.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실태 및 현황

● 세종시 문화콘텐츠 산업적 기반은 미약함

-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318곳(전국의 0.3%), 매출액 81,704백만 원(전국의 0.1%), 종사자 수 1,043명(전국의 0.2%)으로 나타남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실태 현황											
합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방송	애니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업체 수 (개소수)	82	14	154	-	4	8	3	26	5	22	-
매출액 (백만원)	31,272	281	8,981	-	11,845	8,946	1,471	14,507	1,776	2,625	-
종사자 (명)	314	14	257	-	87	80	14	195	35	48	-

자료 : 2019콘텐츠 산업 통계조사보고서(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9년 기준

●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설문조사 결과분석

-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 세종시 내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체 144곳의 표본 중 77곳의 사업체
- 설문조사 결과
 - 세종시 내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사업자이며, 출판산업의 비중이 큼
 - 대부분의 업체가 인력 상황, 경영상태 등 운영전반에 관해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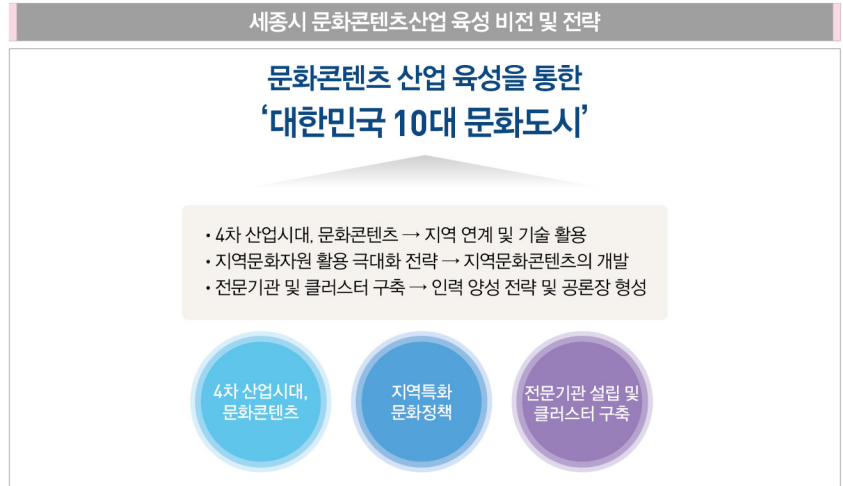
●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심층면담 개요 및 결과

- 심층면담 개요
 - 세종시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4명, 반구조화 인터뷰 진행
- 심층면담 결과
 - 신도시의 미래지향적인 가치, 읍면지역의 전통적인 가치를 아우르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이 필요
 - 문화향유 인프라 부족과 행정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발생
 - 거점기관의 전문성 결여, 네트워크 공론장 활동에 대한 갈증이 있음



IV.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방안

-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세 가지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종시를 문화콘텐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이후 문화콘텐츠산업 온라인 플랫폼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임
 - 인근 대덕연구단지외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거래스'와 같은 기능 도입을 제안함
- 세종시 지역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실천
 - 지역 내 신도시와 읍면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적 소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과 장소 마케팅의 과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문화콘텐츠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문화콘텐츠의 구현은 지역정체성의 정립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요인을 도출함
- 문화콘텐츠 전문기관 조성과 클러스터 구축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지원하는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조성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세종시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를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세종테크노파크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함
 - 세종시 테크노파크에서는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업무만 진행하는 부서를 별도로 조직하여야 하며, 이를 보완할 전문가 위원회 자문기구 설치를 제안함
 - 이외에도 문화콘텐츠 활동가(창작자), 행정가 등 관련된 사람들의 소통과 공감을 목적으로 하며, 이들의 공론장을 위한 소통형 클러스터의 구축이 필요함

I.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세종시는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음
 - 바이오산업은 세종시의 주력산업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으며, 정밀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 왔음
 - 바이오산업이 세종시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환경 변화 및 세종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의 바이오산업 관련 현황을 검토한 뒤, 이를 고려하여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통계 자료 기반으로 세종시 바이오산업 현황을 검토한 뒤, 세종시의 기존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 지역 내외의 인프라 연계, 데이터 연계를 고려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바이오산업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세종시 바이오산업 역량 분석

● 역량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지자체별 바이오산업 역량 분석을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자료(2018년 기준) 기반으로 진행하였으며, 바이오산업 관련 자원, 활동, 성과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함
 - 바이오산업 자원기반 측면에서는 전국 지자체 대비 하위권에 위치하지만, 전년(2017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바이오산업 활동 측면에서도 전년(2017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투자활동이나 기업활동이 기존 대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종시는 완성된 도시가 아닌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역량을 가진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양호한 세종시 바이오산업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바이오산업의 육성 계획을 고려하여 주력 분야에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를 실시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상대적으로 부족한 세종시 바이오산업 자원기반 및 바이오기업 성과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전문 인력 활용 방안과 세종시 대비 바이오산업 역량이 우수한 인근 지역(대전, 충북, 충남)의 관련 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지역 바이오산업 구성 체계 지표		
구성 체계	세부 체계	세부 지표
바이오산업 자원기반	인적자원	- 지역 바이오산업 종사인력 수 - 지역 바이오산업 연구인력 수 - 지역 바이오산업 박사인력 수
	조직자원	- 지역 대학 연구개발수행 조직 수 - 지역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수행 조직 수
바이오산업 활동	투자활동	- 지역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투자 - 지역 바이오산업 시설 투자
	기업활동	- 지역 바이오산업 기업 수
바이오기업 성과	국내성과	- 지역 바이오산업 국내 판매액
	해외성과	- 지역 바이오산업 해외 수출액

자료 : 문혜선(2019), 한국바이오협회 · 한국바이오경제연구원 Innovating Data into Strategy and Business,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지역별 역량 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주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바이오산업의 연간 역량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문혜선(2019)과 달리 바이오산업 역량의 세부지표로서 구성 요소별 증가율 자료는 반영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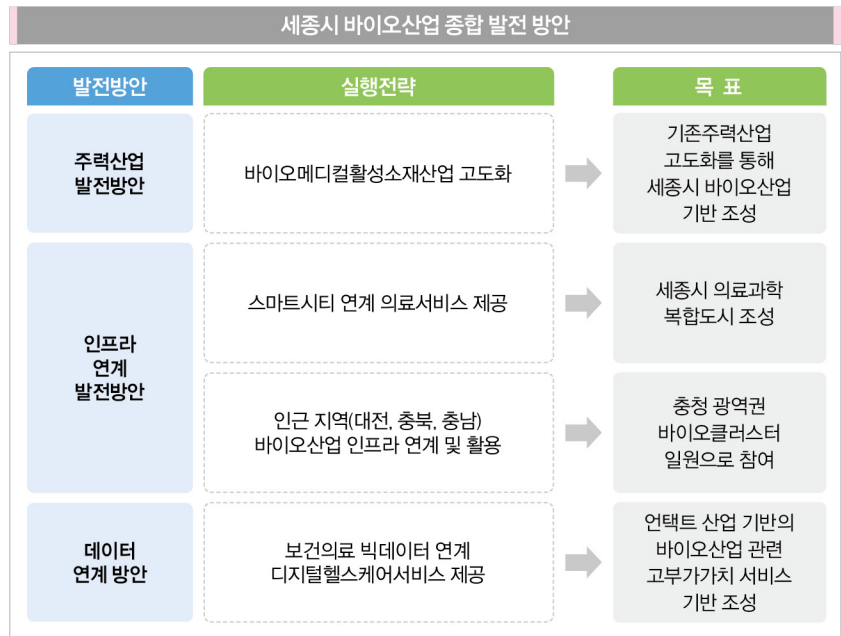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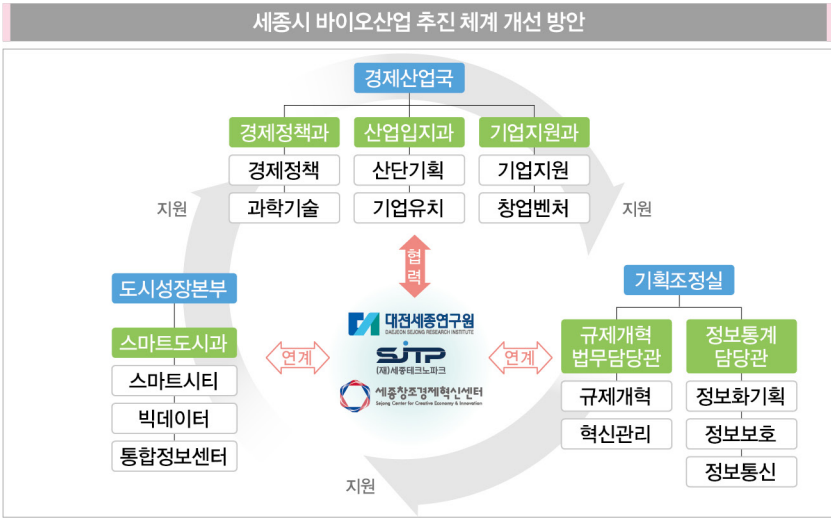
III. 세종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발전 방안

- 세종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은 3개 주요 방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추진 체계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어 제시함
 - (주요 방안 1) 바이오산업 관련 기존 주력산업인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산업 고도화를 통해 세종시 바이오산업의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주요 방안 2) 세종시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인프라인 스마트시티와 연계하여 의료과학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세종시 인근 지역의 인프라인 대전, 충북, 충남의 바이오산업 관련 시설 및 사업과 연계하여 충청 광역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함
 - (주요 방안 3) 코로나19 이후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언택트산업을 바이오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중심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연계 바이오산업 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필요 있음
 - (추진 체계 개선 방안) 세종시가 바이오산업 종합 발전 방안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관련 조직간 상호 지원과 세종시 지역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세종시 바이오산업 추진 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자료 : 저자 작성



자료 : 저자 작성

III. 정책제언

● 정책제언

- 세종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세종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모색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세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이 타 지자체 대비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임
 - 세종시가 경쟁력 있는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요소들을 활용해야 함
 -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가시범도시에 해당하는 스마트시티는 세종시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인프라 연계 의료과학 복합도시 운영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세종시가 타 지자체 대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짐
 - 세종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이 '소재(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서비스(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인프라(의료과학 복합도시)' 관점에서 모색될 경우, 첨단 기술에 기반한 차별화된 바이오 의료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세종시만의 바이오산업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근 지자체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청 광역권 바이오클러스터의 일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반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세종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I. 제안배경

- 세종시의 가로수 고사 및 생육불량 문제가 시민, 의회,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가로수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세종시는 가로수 고사 및 생육불량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시청, LH, 행복청 등)과의 T/F 운영, '세종시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2019)'의 수립, 시민참여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 2020년 2월 시민감동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관리'를 선정하여 시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함
- 가로수에 대한 시민의 의견 반영 및 참여의 활성화로 민원 발생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세종시는 2020년 2월 '시민 가로수돌보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현재 주민 자치회를 통해 협약을 맺고 운영중에 있으나 자발적 참여유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II. 세종시 가로수 관리 현황

● 운영·관리상 문제점

- (고사 현황) 2019년 기준 동지역에 29,709본이 식재되었으며, 이 중 2,897본(9.8%)의 고사목이 발생함(관련 민원 74건)
- (가로수 고사 원인) 부적합 수종, 관수곤란, 토양불량, 식재공간 부족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로수 관리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한계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세종시 지역별 가로수 관리 문제점

1. 인수지역	2. 인수예정지역	3. 미조성지역	4. 읍면지역
부적합 수종 식재 식재기반 및 사후관리 부실	부적합 수종 식재 식재기반 및 사후관리 부실	인수 및 인수예정지역과 동일한 문제 발생 예상	관리부실, 관리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생육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 수종 선정 • 식재기준 미준수, 식재기반과 사후관리의 부실 • 가지고사, 피소 등 가로수 생장 불량 발생 • 조치 : 노각나무 → 이팝나무, 톨립나무 → 팽나무, 청단풍 → 중국단풍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수종 및 식재기반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 그동안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해 추가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조치 : LH합동점검을 통해 불량목 개선조치 후 인수(3생 보람동 BRT구간 청단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 및 인수예정지역과 생육환경이 유사함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토질, 식수대 폭 등 식재기반을 개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식수대 폭이 좁을수록 외부환경에 민감, 1.5M 이상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 조성된 가로수로 오래되어 생육상태 양호 • 수형조절 등 별도의 관리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지속적인 관리가 아닌 필요시 단일사업으로 발주·관리 • 가로수관리원 2명이 민원사항을 처리 중임



● 가로수 관리 추진경과 및 시민참여 현황

- (추진경과) 2018년 가로수 생육 대책 T/F 운영 → 2019년 가로수 기본계획(2019) 수립, 모니터링 및 통합적인 가로수 조사 → 2020년 가로수돌보미 제도 운영, 가로수 생육 개선대책 수립 2기 T/F 운영
- (가로수 돌보미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 9개동 17개 단체에서 총 292명을 모집하였으며, 현재 주민자치회를 통해 협약을 맺고 운영중에 있으나 동별·단체별로 참여율에 차이가 있고 자발적 참여유도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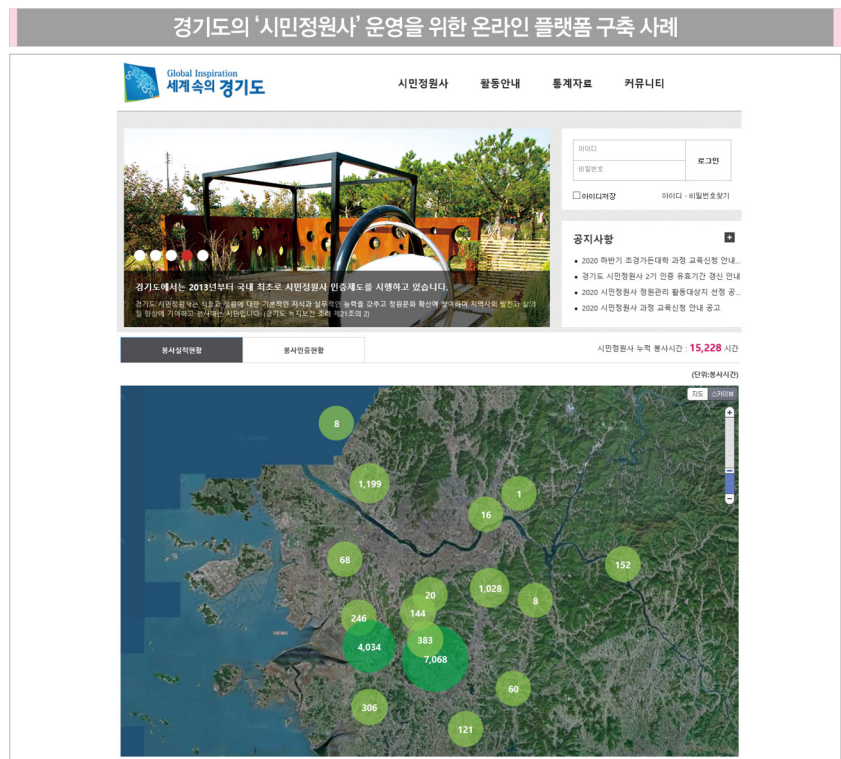
III.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사례

● 국내·외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사례

국내·외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 사례 특징		
구분	특징	
국내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개인·단체로 참여가능 • 책임감을 갖도록 이름표, 표지판 설치 • 콘테스트 참여, 각종 녹화교육프로그램 지원 • 자원봉사 실적인정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인 이상 10인 이내 가족 또는 단체 • (지리정보체계) 인천시 가로수 지도 활용 • 자원봉사 실적인정 • 청소 용품 지원
	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그린트러스트와 연계,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가로수 정원사 학교 운영으로 전문성 확립 • 나무병원 협약체결을 통해 가로수 건강검진단 운영 • 가로수 입양관리 동호회 운영(개인, 학교, 기업 등 단체 참여 가능) • 자원봉사활동 인정, 청소·안전용품 지급, 녹화장비, 프로그램 지원 등 • 가로수 매뉴얼을 바탕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 • '이 거리를 바꾸자' 시스템을 통해 신고시스템 활용방안 제언
	구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회사, 학교, 단체 등이 녹지시설 관리활동에 참여 • 수목명찰달기 운동으로 자기나무라는 소속감 제고 • 명예인증서 수여, 우수 그린오너 표창, 조끼 등 지급
국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0명 규모의 회사가 참여 가능한 기업 자원봉사 형태 운영 •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문제 수목 발견 시 유선 혹은 온라인 주소를 통해 나무상태보고 • 가로수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 나무 상식을 담은 'Tree Tip' 배포 • 강좌를 통해 교육 제공 및 수료 시 '시민가로수정비사' 자격증 수여 • 자체적 식목, 나무입양프로그램 활동을 조직하여 활동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관리 • 제안 공모를 통해 발주 및 관리자 선정, 지정관리자(위탁관리)를 활용하여 예산 삭감 도모 • 어덱터(Adopt) 제도를 활용하여 가로환경 관리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재정적 기반의 보안을 위해 기업과 주민들로부터 후원 도움 • 시민이 직접 후원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만족과 공동체 참여 제고

시사점

- (시민주체성 제고)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참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외적동기)를 통해 가로수에 애착(내적동기)을 갖고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전문성 확대) 가로수 관리 전문가 및 전담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시민 참여자의 지식 및 관리방법을 자격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시민 정원사'와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독자적 관리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각종 SNS, 가로수 지도 등과 같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문제 확인과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관리체계 구축) 도시·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매뉴얼의 제작·배포가 필요하며, 가로수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리주체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주체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통합적인 가로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자료 : 경기도 시민정원사 홈페이지(<http://www.ggardener.com/>)



IV. 정책제언

가로수 생육관리를 위한 진단 및 문제해결 선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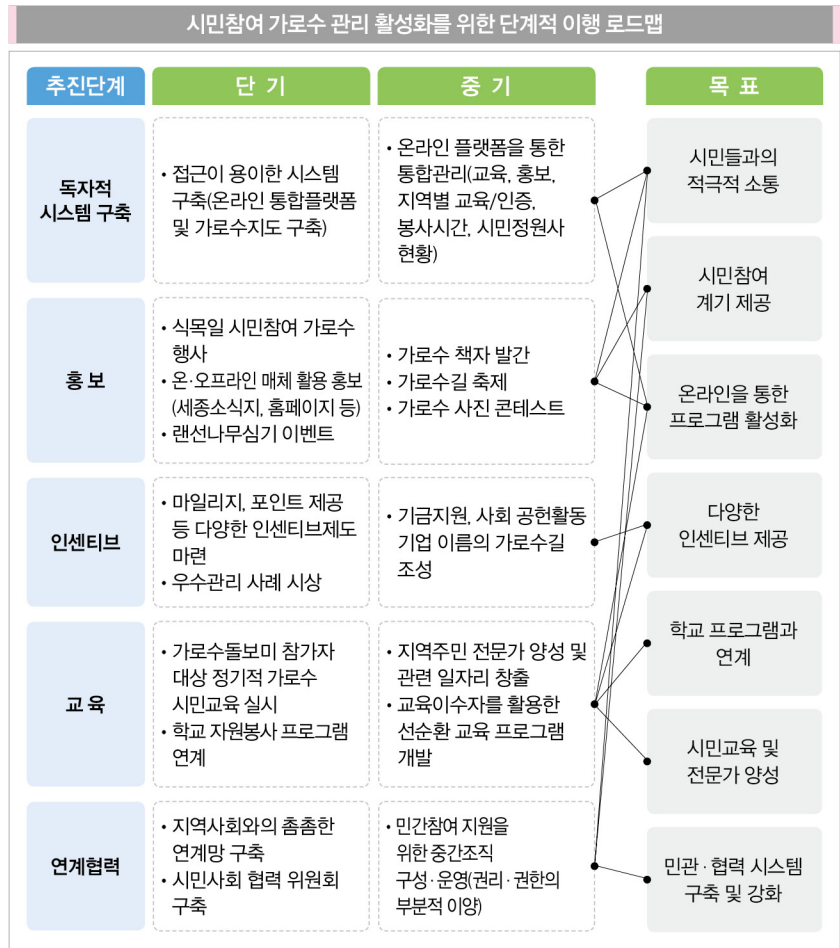
-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 추진에 앞서 수목생육에 적합한 토양환경 조성 및 수종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그릇된 식재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사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사후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수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식재 시 환경을 조성해야 함

가로수 생육관리 장 · 단기 대책	
구분	내 용
수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환경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도시 기반시설(토목 공사)의 일환으로 조성되기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 공간이 없이 단단하게 다져야 하며, 이러한 토양 환경에서는 나무가 뿌리를 뺄 수 없음
	• (단기대책) 현 상태에서 해결책 모색 - 식재지 전반에 대한 토양환경(물리/화학적, 유효토심 등)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토양 환경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종을 확인하여 DB를 구축함 - 향후 교체 수요가 있을 시 해당 구간에는 이들 수종을 식재함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식재계획에 반영함
	• (장기대책) 수목이 요구하는 토양 조성 - 도시계획 설계 단계부터 식재지 토양을 산림토양과 같이 별도로 조성함 ※ 산림토양 : 부피의 50%가 빈 공극
적합한 수종 선정	• (현황 및 문제점) 토양환경과 무관하게 선호하는 수종을 식재함
	• (단기대책) 토양환경 조사를 기반으로 적합한 수종 탐색 - 부지환경을 중시할 경우, 부지환경에 적합한 수종 선정 및 식재가 필요함 - 식재 수종을 중시할 경우, 해당 수종에 적합한 환경(토양, 공간) 확보 후 식재해야 함
	• (장기대책) 지역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소교목 가로수 품종을 개발하고, 교체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적용

시민참여 가로수 관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단계적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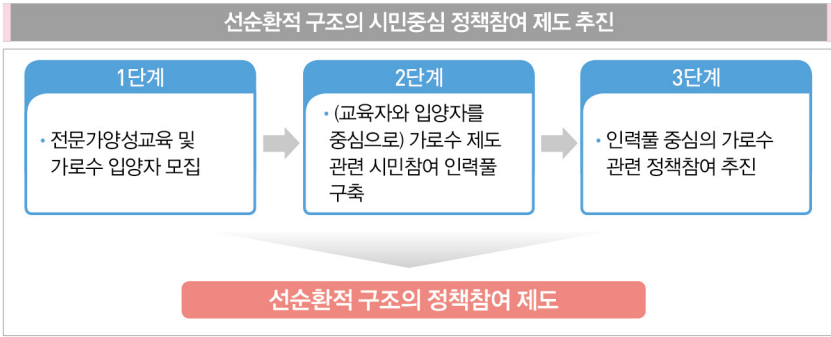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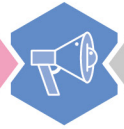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크게 5가지 분야(독자적 시스템 구축, 홍보, 인센티브, 교육, 연계협력)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단기 · 중기과제로 구분함
 - 홍보, 교육 부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및 행사, 축제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및 홍보를 우선할 수 있음
 - 참여자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봉사활동 점수 부여, 인증서 발급, 휴양림 혹은 관내 여가시설(베어트리파크 등)의 입장권 제공 등을 통해 활동의 동기부여가 가능함

세종시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방안



● 가로수 관리 시민참여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성 강화

- (민·관 협력 조직체계 구성) 현재 운영중인 '시민주권회의 환경녹지분과 가로수 소위원회'의 활성화와 확대, 지역별 가로수 관련 시민조직 운영, 민간 위탁이나 MOU 등으로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민참여제도(가로수돌보미)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의 조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순환적 구조의 시민중심 정책참여 제도 추진) 개개의 참여사업을 하나의 선순환적 구조를 갖는 정책참여 제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제도의 참여정도에 따른 운영방안 세분화) 시민참여를 참여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참여자 그룹을 분류하고 운영방법을 세분화 하여 조직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감시(예찰) 그룹 : 병충해 발생여부 등의 신고활동
 - 소극적 참여 그룹 : 청소, 물주기 등의 활동
 - 적극적 참여 그룹 : 가로수 입양 등의 활동
- (참여자의 책임감·소속감 제고를 통한 지속성 강화) 활동 도중에 그만두거나 소홀히 할 경우 인수자를 본인이 지정하는 등 조금은 강력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안겨줄 필요가 있음
 - 가로수 관리구간 마다 구간 초입과 말단에 시민관리자(개인, 단체)의 이름을 명패로 달아주어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 (재정지원 및 공간이용권 부여를 통한 활동성 강화) 가로수 관리구간을 설정할 때 연결되어 있는 광장이나 유희지, 공유지, 공원 등을 함께 묶어서 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에서 작은 행사를 주최하거나 수목 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시(市)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참여자의 활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https://www.dsi.re.kr>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Tel. (042) 530-3500 Fax. (042) 530-3528

발행인. 정재근 편집인. 임성빈 등록일. 2017. 10. 30. 등록번호. 대전중, 바00008